

魯迅 研究의 새로운 方向

高點福*

< 목 차 >

1. 들어가며
2. 작가와 작품에 대한 연구
3. 비교 연구
4. 동아시아론에 입각한 연구
5. 나오며

1. 들어가며

魯迅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으며, 향후 어떤 의미여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다름 아니다. 즉, 20세기 魯迅 연구가 규명해내고 있는 의미와 그것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연구가 지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고찰을 통해 비로소 올바른 질문이 던져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중국 현대 작가 가운데 연구의 측면에서나 일반 독자의 측면에서 일정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그에 대해 물음을 던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문학과 정치의 관계가 밀접한 중국의 경우, 魯迅에 대해 어떤 견해를 제출하는 것은 여타 다른 작가들에 비해 훨씬 어렵다. 魯迅 연구사 자체가 중국 현대 지식인의 정신사를 일정하게 대변할 정도의 위상을 갖는 중국에서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魯迅에 대해 물음을 던져야 하는 이유는 중국, 혹은 동아시아

와 관련된 담론의 중심에 그가 있기 때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표적인 근대 메타포인 毛澤東의 삼위일체론으로부터 계몽주의적 변용을 거쳐, 동아시아 근대 해석의 틀로서의 魯迅 연구에 이르기까지, 魯迅은 담론 형성의 주춧돌이자 핵심이었다. 본고는 이러한 흐름을 간략하게 점검하고, 이를 가능케 했던 요소들에 대해 논구하고자 한다. 논지 전개에 편의를 위해 다음 세 항목으로 나누어 서술을 진행할 계획이다.

1. 작가와 작품에 대한 연구.
2. 비교 연구.
3. 동아시아론에 입각한 연구.

이러한 분류는 시간의 선후에 따른 연구의 확대 과정이지, 연구 방향의 결정적인 전환은 아니다. 세 항목은 긴밀하게 연결된 채 서로를 추동하고 있으며, 순환적 연계를 통해 폭과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문제는 개별 연구자들이 세 항목의 연결 지점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며, 그 고리는 또 어떻게 각각의 연구 항목에 자극제가 되는가 하는 점이다. 개별 항목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어떻게 魯迅과 그의 문학을 비교적 완정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세 항목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동아시아론의 정합성을 규명해내기 위해서라도 작가와 작품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며, 동아시아 3국의 유사한 듯 다른 정체성의 규명을 위해서도 비교문학적 연구의 가치 역시 크다. 또 비교문학적 접근과 동아시아라는 방법론을 통해 魯迅과 그의 작품이 풍요로워진다면, 이 역시 의의가 크다. 이 과정에서 문학과 여타 다른 예술 장르 및 사회과학과의 연결고리 또한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전통적 연구 방법과 새로운 방법론의 결합을 통해 魯迅과 그의 문학은 끊임없이 확장·재생되고 있다.

* 高麗大 中語中文學科 講師

2. 작가와 작품에 대한 연구

魯迅과 그의 문학의 확장·재생은 기본적으로 그의 삶과 작품이 갖는 모종의 매력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毛澤東의 三位一體論, 瞿秋白의 爭友, 丸山昇의 혁명가, 竹內好의 문학가, 汪暉의 역사적 중간물 등의 표현은 모두 이를 반증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魯迅의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한 시도이자, 魯迅을 해석하는 연구자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더불어 魯迅과 그의 삶이 갖는 현실적 유용성 역시 이와 같은 표현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魯迅만큼 중국 공산당에 의해 정치적으로나 이데올로기적인 목적으로 널리 이용된 작가도 없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魯迅의 삶과 작품이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가치 확립을 위해 상당 부분 왜곡되어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¹⁾ 즉 ‘있는 魯迅’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있어야 할 魯迅’을 만들어낸 결과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²⁾ 新時期 이후 제기된, “먼저 魯迅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이를 반증한다.³⁾

중국 대륙의 魯迅 연구는 新時期 이후 얼마간의 변화를 겪지만, 魯迅은 중국 문화혁명의 主將이며, 위대한 문학가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상가이며 위대한 혁명가였다⁴⁾는 毛澤東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면이 강하다. 공산당 문예이론가들에 의해 魯迅의 문학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중국식 사회주의를 선전하고 학습하는 수단이 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후 魯迅 연구의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은 이와 같은 방법론은 그것의 성과 이면에 자신들의 견해와 필요

에 따라 임의적으로 魯迅을 상상하고 구성한 성격이 강하다. 魯迅 작품의 전파와 읽기, 연구가 공화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중국식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錢理群의 표현에 따르면, 魯迅 작품의 전파와 읽기 및 연구가 점차 하나의 정치행위가 되었다⁵⁾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魯迅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오랫동안 魯迅의 텍스트가 갖고 있는 정치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사회·역사적 의의를 드러내는 데 집중되었다.⁶⁾ 특히 문화대혁명 시기에 이르러 魯迅은 겉으로는 치켜세워지고, 신화화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왜곡되고 꾸며지게 되었으며, 초라하고 메마른 정치 기호가 되었다.⁷⁾

이런 비판이 대두되기 시작한 시점이 신시기 이후이다. 이 시기의 연구 역시 당과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규범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지만, 개혁과 개방이 가져온 부산물도 있다. 그것은 이전의 연구가 사상가·문학가·혁명가로서의 魯迅의 면모를 찾는 데 주력했다면, 신시기 이후에는 啓蒙者 魯迅의 像이 부각된 점이다. 즉 毛澤東의 견해에 근거한 魯迅 연구 흐름과 魯迅 연구자를 포함한 지식인의 사상해방과 계몽에 대한 욕구가 서로 충돌하고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魯迅 연구의 틀이 잡혀갔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전 시기에는 부정되거나 홀시되었던 魯迅의 국민성 개조에 대한 견해·개성주의·인도주의 정신·가져오기주의(拿來主義)·서구 모더니즘 수용 등이 다시 빛을 받고 연구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같은 연구 풍향에 대한 재점검과 비판이 90년 이후 魯迅 연구의 한 방식으로 자리를 잡는다. 90년대 이후의 중국 사회를 특징짓는 말로 商品化를 들 수 있는 것처럼, 魯迅 연구에도 그 영향은 작지 않았다. 魯迅의 글에 나타난 인물과 글의 제목이 商標化되었을 뿐 아니라, ‘咸亨酒店’, ‘三味書店’, ‘祝福’ 택시회사와 같은 것이 나타났으며, 魯迅의 사생활마저 서점가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렇게 학술적 연구에 스며들기 시작한 상업화는 魯迅을 私人化시키고, 生物化하는 경향을 낳았다.⁸⁾

물론 이 과정에서 그동안 등한시되거나,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던 魯迅의

1) Merle Goldman, "The Political Use of Lu Xun" (*The China Quarterly* No.91, Sep. 1982, 446쪽)을 참고.

2) 동아시아론에 입각한 魯迅 연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4절에서 논의.

3) 전형준, 「중국문학의 루쉰과 동아시아 문학의 루쉰」(『중국 현대문학의 세계』, 현암사, 1997, 17쪽)을 참고.

4) 毛澤東, 「新民主主義論」, 孫郁黃喬生 編選의 『紅色光環下的魯迅』(河北教育出版社, 2002, 中國 石家莊, 58쪽)에서 재인용.

5) 錢理群, 「魯迅: 遠行以後(1949-2001)之四」(『文藝爭鳴』, 2002년 4기.)

6) 姚馨丙, 「魯迅研究的闡釋與反思」, 『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 2002년 제4기, 133쪽.

7) 姚馨丙, 위의 글, 134쪽.

8) 錢理群, 위의 글을 참고.

면모가 새롭게 밝혀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다른 왜곡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그 예로 민족주의자와 新儒學, 新國學의 권위자들에 의해 고취된 중국 中心論은 전통을 단절시킨 주장으로 魯迅을 든다는 점이다. 한편 이러한 경향과는 대조적으로 나타난 것이 魯迅의 개인적인 언술 행위를 통해 그의 사상의 진정한 독창성을 찾으려는 흐름이다. 이는 문체가로서의 魯迅 像을 찾으려는 결과를 낳았는데, 주로 魯迅 소설의 실험성과 魯迅의 문학 텍스트 자체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룬다.

90년대 이후의 國學熱에 대한 반박과 영미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대두된 연구 흐름이 魯迅에게서 자유주의자적 면모를 찾는 경향이다. 즉 英美식 자유주의에 근거하여 胡適과 魯迅의 자유주의자적 면모를 찾고 있는데, 대체적인 흐름은 英美식 자유주의자가 胡適이라고 한다면, 魯迅의 경우는 어떠한 가라는 점에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魯迅은 자유주의에 대해 그다지 흥미를 갖지 않았으며, 魯迅의 魯迅됨은 그 어떤 주의자가 아니라는 점, 혹은 ‘反主義者’라는 점에 있다고 보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⁹⁾

3. 비교 연구

비교문학연구는 자명한 영향관계와 수용관계가 있는 작품을 비교·연구하는 프랑스학과와 직접적 영향관계가 없으면서도 비슷하거나 공통적 특징을 가진 작품을 비교·연구하는 미국학과와 비교문학으로 양분된다. 前者가 전통적 의미에서 비교문학연구라고 한다면, 後者は 문학과 문학 뿐 아니라, 문화·번역·기타 예술 장르까지를 비교·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¹⁰⁾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국내의 魯迅 연구 및 비교 연구는 크게 프랑스학과와 방법론으로부터 미국학과적 방법론으로 변모해왔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시를 통해 魯迅 수용의 일면을 살펴보자.

詩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서른 먹은 사내가 하나 잠을 못 잔다./면—汽笛소리
처마를 스쳐가고/잠들은 아내와 어린 것의 베갯말에/밤눈이 내려 쌓이나 보다./무수
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항시 곤두박질해온 生活의 노래/지나는 돌팔매에도 이제
는 피곤하다/먹고 산다는 것./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등불을 키고 일어나
앉는다./담배를 피워 문다/쓸쓸한 것이 五腹을 씻어나린다./魯迅이여/이런 밤이면 그
대가 생각한다./온-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上海 胡馬路 어느 뒷골목에서/쓸쓸
히 앉아 지키던 등불/등불이 나에게 속삭거린다./여기 하나의 傷心한 사람이 있다./
여기 하나의 군세계 살아온 인생이 있다.

김광균 「魯迅」전편¹¹⁾

비교연구가 규명해내고자 하는 바를 위의 시에서 일람할 수 있는데, 그것은 수용의 과정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비교연구의 단초로서 위의 시를 간단히 분석해보자. 분명 김광균은 어느 시기엔가 魯迅의 삶과 문학을 접했을 것이다. 자신의 고단하고 쓸쓸한 삶을 魯迅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시인에게 魯迅은 상심한 채 군세계 살아온 인생의 대표격으로 비취진다. 시인은 그런 魯迅의 면모를 통해 자신의 쓸쓸하고 고단한 삶을 어루만진다. 시인에게 魯迅은 등불을 지키는 쓸쓸한 자로 인식되며, 이는 다시 도시문명의 혼란 속에서 指向을 찾았던 시인 자신과도 겹쳐진다. 비교연구는 일차적으로 이러한 수용의 과정과 방식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정서적 유사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김하림이 「韓國에서의 魯迅文學 受容 樣相」(『중국인문과학』 제12집, 1993)에서 밝히고 있듯, 한설야·이육사·이병주·이광수 등의 작가들은 직·간접적으로 魯迅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들에 대한 연구 역시 魯迅과의 연관성 안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연구자 역시 중문학 연구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김경연의 「이광수와 루쉰(魯迅)의 비교문학적 고찰-초기 평론 및 소설을 중심으로」(『문창어문논집』 제39집, 2002), 김영옥의 「『무정』과 『광인일기』의 근대성 연구」(『한국어문교육』 제12집, 2003), 심원섭의 「이육사의 초기 문학평론

9) 王彬彬, 「魯迅의 腦袋와 自由主義의 帽子」(『魯迅研究月刊』, 2000년 11월)를 참고.

10) 김영옥, 「『무정』과 『광인일기』의 근대성 연구」(『한국어문교육』 제12집, 2003, 278쪽)

11) 김하림, 「韓國에서의 魯迅文學 受容 樣相」(『중국인문과학』 제12집, 1993, 540-541쪽)에서 인용.

및 소설에 나타난 魯迅 문학 수용양상」(『연세어문학』 제19집, 1986) 등을 들 수 있다.

국문학 연구자들이 보이는 비교연구의 특징은 우선 魯迅 문학의 수용양상에 대한 연구, 다음으로 19세기말 20세기 초 양국의 유사한 사회 상황에서 기인한 정서적 공감대를 찾는 부분에서 찾아진다. 즉, 한설야·이육사·이병주·이광수 등과 같은 작가들이 魯迅의 문학을 수용하는 방식과 약소민족의 슬픔, 애국심이 나 민족의식의 고양, 근대 체험과 같은 주제를 魯迅의 문학과 연계하여 고찰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문학 연구자들의 비교연구 방법론 역시 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소재와 주제 면에서 유사한 작품을 비교·연구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전형준의 「세 개의 『고향』 : 치리코프, 魯迅, 현진건」(『중국문학』 제34집), 엄영옥의 「魯迅과 춘원에 있어 일본과 서구 수용양상 비교」(『중국학보』 제48집, 2003), 이시환의 「한중 현대문학에 나타난 고향의식 비교」(『중국어문학』 제41집, 2003), 유세종의 「루쉰과 한용운 혁명의 현재적 가치」(『중국현대문학』 제22집) 등이 좋은 예이다. 이는 간단히 근대 체험과 문학의 효용성에 입각한 비교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작가로서의 魯迅과 실천적 사상가로서의 魯迅이 주로 수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主題 측면에서 魯迅과 관련된 비교문학연구의 주류는 전근대적 전통의 억압과 근대 체험이 가져온 새로운 모색의 방향과 방법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문학 연구자들의 비교연구가 이러한 면모를 강하게 보이는데, 대체적인 흐름은 전통과 서구 근대를 동시에 넘어서고자 했던 루쉰의 사유를 살피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연구의 과정에서 근대 체험과 비판의 무기로서의 동아시아론에 입각한 연구로의 확장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魯迅의 문학과 기타 예술 장르와의 비교연구를 들 수 있는데, 유세종의 「‘웨이쵡(未莊)’에서 ‘편양(汾陽)까지’-지아장커(賈樟柯)의 ‘고향삼부곡’론」, (『중어중문학』 제38집, 2006)과 광수경의 「魯迅 소설의 각색과 중국영화사」(『중국문학연구』 제25집, 2002) 등을 들 수 있다. 중국 영화를 비롯한 중국 문화 전반에 대한 연구는 현 시기 중국학의 주요 연구 방향 가운데 하나이다. 이의 연장선에서

魯迅의 문학과 중국 영화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도 활기를 띠고 있다.

유세종의 논문은 魯迅에 대한 연구 관점에서 지아장커(賈樟柯)의 영화를 분석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만, 魯迅 사유의 현재적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논문은 중국의 현실에 대한 魯迅의 관심과 지아장커의 그것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魯迅의 문학과 지아장커 영화의 공통점을 현실을 회화시키고 처참하게 만들어 보는 이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슬프고 불편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접근법이 얼마나 영화 자체의 예술성을 담아내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흔히 종합예술이라고 불리는 영화가 이 과정에서 스토리와 연구자의 指向만 남고, 나머지는 사장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동아시아론에 입각한 연구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함께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자본주의가 전지구적으로 관철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의 경제성장과 그것의 원인에 대한 탐구, 그리고 근대적 이성에 대한 비판 경향의 대두로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동아시아론은 어느덧 국내 학계의 핵심 담론이 되었다. 동아시아론을 통해 국내 연구자들은 서구적 근대에 의해 주변화되고 왜곡되고 억압받아온 동아시아적인 것을 복원하고, 이를 서구적 근대 내지 자본주의적 근대 이후의 새로운 시대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¹²⁾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아시아론의 핵심은 동아시아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데 있으며, 동아시아 3국의 문명 교류를 살피는데 두어진다. 이 과정에서 竹內好의 아시아론과 그의 사상 형성에 밑바탕이 되었던 魯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魯迅은 『文化偏至論』에서 중국이 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며, 그 개혁의 방향이 결국 ‘서구 따라 배우기’가 되어야 함도 부정할 수 없는 대세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 적어도 편향된 근대의 무조건적 수용

12) 이에 대해서는 전형준의 「동아시아 담론의 비판적 검토」(『인문학지』 제15집, 1997)를 참고.

으로 이미 구습의 폐해에 병들어 있는 중국을 다시 병들게 하는 근대가 아닌, 근대 주위의 폐해를 극복한 진정한 근대 따라 배우기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竹內好의 아시아론은 일본은 근대를 극복하고 아시아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가 말하는 근대는 서구적 근대이며, 유럽에서 발생한 독특한 사회 및 문화적 존재 형태를 가리킨다. 반면 아시아는 유럽 문명이 지닌 장점을 계승하면서도, 그것이 지닌 문제점들을 극복하여 한 차원 높은 문명을 이룩한 상태를 지칭한다. 그가 보기에 일본의 근대는 아시아적 본성을 상실하고, 강제된 서구의 근대를 수용한 결과이다. 이렇게 서구 근대에 대한 魯迅과 竹內好의 견해는 유사한 점이 많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론을 구상하는 논자들은 양자의 비교를 통해 동아시아적인 것의 정체와 동아시아적 근대 및 근대 극복의 모델을 찾으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魯迅과 竹內好의 근대관을 재조명함으로써 국내·외 학계에 이름을 알린 연구자로 孫歌가 있다. 그녀의 연구 방법론은 “나는 다케우치 요시미를 따라 일본의 근대로 들어갈 수 있었으며, 그로부터 魯迅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계발되어 다시 중국의 근대로 들어갈 수 있었다.”¹³⁾라는 언급에서 찾아진다. 이러한 언급은 魯迅을 연구한 竹內好를 통해 일본의 근대 및 중국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해주는데, 이를 통해 외국 문학을 연구하는 유효한 방법론을 얻게 된다. 그것은 자국과 타국, 안과 밖의 경계선에서 어느 한쪽으로의 치우침 없이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혼란한 중국 사회를 분석하고 개조하고자 하였던 魯迅의 삶과도 어울린다. 이러한 측면에서 孫歌의 연구는 竹內好가 魯迅을 수용한 방식과 竹內好를 거쳐 魯迅을 재이해하는 방식의 차이 및 양자의 연결고리를 제시함으로써 연구 방법론을 새롭게 했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孫歌가 竹內好라는 연구자와 魯迅이라는 작가의 비교연구를 통해 일본과 중국의 근대 및 근대 극복의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다면, 히야마 히사오(檜山久雄)는 魯迅과 나쓰메 소세키(夏目石漱)라는 양국의 걸출한 두 작가의 비교를 통해 중국과 일본의 서구적 근대를 비판하고, 동양적 근대의 指向을 모색하고 있다. 히야마의

언급에 의하면, 魯迅과 소세키는 뒤쳐진 동양에서 출발하여 서구 모방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근대의 창출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魯迅에게는 수천 년의 전통이 족쇄로 작용했던 데 비해, 소세키에게는 제국주의로 직결되는 擬似근대가 족쇄였다는 점이 다르다.¹⁴⁾ 따라서 소세키에게는 자기분위가, 魯迅에게는 자기해부가 유용한 방법론이었다는 것이 히야마의 견해이다.

동아시아론을 통해 재조명되고 있는 魯迅의 면모는 이와 같은 진술의 磁場圈 안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표적인 연구물로 유중하의 「中間物로 짚은 東아시아의 두 點-魯迅 橫步의 경우」, (『중국어문학지』 제4집, 1997), 서광덕의 「동아시아 지성사에서 魯迅(魯迅)의 의미」, (『중국어문학지』 제41집, 2003), 전형준의 「중국문학의 魯迅과 동아시아 문학의 魯迅」(『중국 현대문학의 세계』, 현암사, 1997)과 「한·중 문학과 동아시아 문학-정체성과 전통/근대의 문제를 중심으로」(『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2000)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를 일별해보면, 한중일 3국의 魯迅 연구는 魯迅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진 자국의 근대에 대한 발언임을 알 수 있다. 거기에는 자국의 전통과 근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한중일 3국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魯迅을 통해 찾아내려는 고민이 담겨 있다. 이들의 논지를 거칠게 요약하면, 한중일 3국의 근대는 주체적 근대가 아닌 타율적 근대, 이식된 근대, 번역된 근대였다. 따라서 3국의 근대는 지속적인 자기부정을 요구하였다. 자기부정을 통한 자기개조 혹은 자기갱신의 방법, 재인식과 재구축의 방법론 모색이 동아시아론에 입각한 魯迅 연구의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1940년대 초에 竹內好에 의해 진정한 ‘일본의 魯迅’이 태어났다면¹⁵⁾, ‘한국의 魯迅’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연관된다. 魯迅과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든, 비교연구를 통해서든, 동아시아론에 입각한 연구를 통해서든, 우리는 아직 진정한 ‘한국의 魯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魯迅像을 분명히 한 후, 동아시아론이 구상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물론 우리의 魯迅

14) 히야마 히사오 저, 정선태 역, 『동양적 근대의 창출-루쉰과 소세키』(소명출판, 2000, 107쪽)를 참고.

15) 쑨꺼 지음, 위의 책, 176쪽.

13) 쑨꺼 지음, 류준필 외 옮김, 『아시아라는 사유 공간』(창비, 2003, 51쪽.)

像을 만들기 위해 중국과 일본의 魯迅을 가져오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가져오기 위한 준비가 탄탄하지 않다면, 재구성은 물론이고 역수출의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결국, 본고가 편의적으로 분류했던 세 항목 가운데, 첫 번째 항목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향후 더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5. 나오며

「寫在『墳』後面」에서 魯迅은 자신을 시대의 전환기에 흔히 볼 수 있는 정체불명의 작가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루迅은 고전이 될 수 없다. 그것은 그와 함께 했던 그 시대가 아직 자신의 과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¹⁶⁾이라는 竹內好의 언급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이와 함께 魯迅을 ‘모순의 집적체’로 간주하고, 이 모순을 근대와 탈근대의 형태로까지 확장하여 파악하려는 錢理群의 견해¹⁷⁾까지 더해지면 연구의 다양성은 더욱 커진다. 그것이 동아시아적 관점의 해석이든, 비교연구 차원의 접근이든, 작가와 작품에 대한 문예이론적 해석이든, 모두 魯迅과 그의 작품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연구는 바로 이러한 주지의 사실로부터 시작된다. 작품으로부터 비교연구와 동아시아적 魯迅이 가능하며, 되돌아와야 할 지점 역시 魯迅의 작품에 있다는 점은 연구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자신만의 고유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작품을 이리저리 훑기는 것은 연구자의 몫이지만, 작품을 연구자만의 공간으로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 비교연구를 통해서든, 동아시아적 접근을 통해서든, 魯迅과 그의 작품으로 향하는 문은 항상 열려있어야 하는 것이다.

본고가 보기에 魯迅의 작품은 정체성의 혼란과 시대적 어둠을 온몸으로 감싸안은 채, 혼란과 어둠을 향해 묵묵히 나아갔던 쓸쓸한 삶의 기록이다. 魯迅의 창작

은 근대적 자아라는 밝은 빛보다는 오히려 암흑과 허무를 통하여, 자신 속의 어둠을 통하여, 중국의 인생을 말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⁸⁾ 진부하게 느껴지는 魯迅연구의 키워드인 침묵의 외침, 反抗絶望, 爭扎, 自己解剖 등의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다.

< 參考文獻 >

- 히야마 히사오 저, 정선태 역, 『동양적 근대의 창출-루迅과 소세키』, 소명출판, 2000.
 쏜 꺼 지음, 류준필 외 옮김, 『아시아라는 사유 공간』, 창비, 2003.
 정문길, 최원식, 백영서, 전형준 엮음,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2000.
 김영옥, 「『무정』과 『광인일기』의 근대성 연구」, 『한국어문교육』 제12집, 2003.
 유세중, 「웨이쑹(未莊)에서 ‘편양(汾陽)까지’-지아장커(賈樟柯)의 ‘고향삼부곡’론」, 『중어중문학』 제38집, 2006.
 김하림, 「韓國에서의 魯迅文學 受容 樣相」, 『중국인문과학』 제12집, 1993.
 김경선, 「중국문학과 한국문학의 영향관계 고찰-양계초와 魯迅의 경우」, 『우송대학교논문집』 제4집, 1999.
 심원섭, 「이육사의 초기 문학평론 및 소설에 나타난 魯迅(魯迅) 문학 수용양상」, 『연세어문학』 제19집, 1986.
 유중하, 「中間物로 짚은 東아시아의 두 點-魯迅, 橫步의 경우」, 『중국어문학지』 제4집, 1997.
 서광덕, 「동아시아 지성사에서 루迅(魯迅)의 의미」, 『중국어문학지』 제41집, 2003.
 김경연, 「이광수와 루迅(魯迅)의 비교문학적 고찰-초기 평론 및 소설을 중심으로」, 『문학어문논집』 제39집, 2002.
 광수경, 「魯迅 소설의 각색과 중국영화사」, 『중국문학연구』 제25집, 2002.
 전형준, 「세 개의 『고향』 : 치리코프, 魯迅, 현진건」, 『중국문학』 제34집.
 엄영옥, 「魯迅과 춘원에 있어 일본과 서구 수용양상 비교」, 『중국학보』 제48집, 2003.
 이시환, 「한중 현대문학에 나타난 고향의식 비교」, 『중국어문학』 제41집, 2003.
 18) 히야마 히사오 저, 정선태 역, 『동양적 근대의 창출-루迅과 소세키』 (소명출판, 2000, 65쪽.)

16) 쏜 꺼 지음, 위의 책, 186쪽.

17) 錢理群 저, 『魯迅語萃』, 華夏出版社, 1993.

이육연, 「동아시아론의 지형학」, 『철학과 현실』 제45호, 2000.

전형준, 「동아시아 담론의 비판적 검토」, 『인문학지』 제15집, 1997.

< 中文提要 >

魯迅研究史就是20世紀中國知識分子思想變化和心理感受的一種顯示。從毛澤東的三位一體論開始，關於魯迅和他的文學出現了各種各樣的看法。我國的魯迅研究也隨著20世紀各國的魯迅研究發生了變化。其中值得提起的是比較研究和關於東亞細亞論的魯迅研究。該文著眼於這兩種研究方法記述了魯迅研究史的特點和新的方向。21世紀是全球化時代，隨著它魯迅研究也漸漸被全球化了。21世紀魯迅研究不是一國的成就，中國的成就、西歐的成就、日本的成就、我國的成就一塊融合起來展現魯迅研究的成就。從這樣的看法，比較研究和關於東亞細亞論的魯迅研究值得注意的。

關鍵詞：魯迅、東亞細亞論、比較研究、魯迅研究史、反抗絕望、自己解剖

원고접수일	2007. 12. 31
심사일정	2008. 2. 14
1차수정	2008. 2. 26
계재확정	2008. 3. 7
출간	2008. 3. 30